



치아빠스 입데이트

까스까다 마을의 마리아 자매. 2년간 설교자가 없어 폐쇄했던 교회문을 다시 열자 얼마나 즐거워하던지...

혼자된 사실, 친구 이야기!

혼자가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설상가상의 슬픔이겠죠? 사랑사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 곳에서 선교사역하다보니 이런 문제들을 자주 접하고 씨름하게 됩니다. 저희가 외롭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가정이 섬기는 현지인들이 혼자였다는 것이죠. 선교사를 알기 이전의 치아빠스는 참으로 외로웠답니다. "친구" 개념이 약했기 때문이라고나 할까...? 매일 대하는 얼굴 속에서 믿음을 주기 보다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그래서 서로 경계의식으로 일상 생활을 보내는 서글픈 시골환경. 어수선한 정치와 반란군들의 위협, 날마

다 목격하는 친족사회 지역주민들의 분열로 신용 잃은 사회가 되어버린게죠. 이런사회에서 선교사란 친구가 될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되어 믿음의 친구로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저희 가정은 성경학교학생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었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 것같이 다른 치아빠스인들에게 더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친구가 되어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대하는 멕시코를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치아빠스는 멕시코에서도 다른 지방과는 달리 10여년전부터 급속도로 많은 관심을 받는 주가 되어왔습니다. 물론 반란군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

른 곳보다는 선교활동이 더욱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어느 교단에서는 집중선교지로 정하고 모든 선교사를 치아빠스로 파송했던 시대(1960-80)도 있었답니다.

숫적으로 개신교가 많은 탓으로 골이 난 천주교인들은 종종 시기를 포함합니다. 심하게는 핍박도 즐긴답니다. 하지만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두려움보다 기쁜 날을 더욱 많이 보는 쪽입니다. 외부에서 계속 찾아와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독교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정부와 손잡고...

이번에는 치아빠스정부직원들과 한자리에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에 대한 설득과 저들 스스로 찾도록 하기 위한 교육방법을 습득하려는 공동목적을 갖고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치아빠스 공무원은 반기독교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같이 일주일간 교육받으며 동거동락을 하더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고백하며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디 저들의 입술을 통해 고위층 관리들에게 주님이 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뭔가 이루고 싶다!



개울에서 빨래들을 주섬주섬 모아 빨래하며 미역감고, 엄마아빠 자리 비운 사이 언니들은 어린 동생들 옆구리에 끼어

오래전 한국 시골을 연상케 하는 농촌환경을 차아빠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은 옥수수밭일가고, 상상밖으로 아낙네들이 딸감을 주어다 음식마련하고,

들쳐안고 졸망졸망 길거리에 모여있는... 참으로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전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젊은세대는 더이상 이런 환경에 묶여있지 않으려고

발버둥하지요. 허수름하더라도 일단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나면 농사일을 뿌리치고 도시로 나가려는 눈치생활을 시작합니다. 교육에 대한 부모의 자발적 도움이 없는 아이들은 여러 이유들을 만들어 도시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간혹 신학교를 구실로 삼기도 하지요. 사진의 빼뜨로나와 아나자매는 셀말 부족으로 땅콩팔이 아버지의 뒷바라지로 빨랑게에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단데요. 엄마가 많이 아파 불편해 하며 여의었거든요.



* 같이 * 기도 해 * 주세요 *



극받는 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진들은 또쥬마을에 모여 말씀을 탐구하는 신입생들입니다. 왼쪽부터 페데리코 형제, 후안

베드로 형제(위 사진, 농촌 초등학교 교사)는 오래전 멕시코 신학교에서 3년 정규과정을 이수한 신학도이지만 목회자 생활을 사정상 접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반사역을 합니다. 요즘들어 부쩍 해야겠다는 심오한 음성으로 자

집사, 가스빠르 목사, 그리고 사무엘 형제는 서로 다른 교회들을 섬기는데, 간혹 설교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전할 수 없을만큼 두려움에 갇힌답니다. 말씀앞에 이들의 아름다운 의도를 기도로 높이 들려주시고 더욱 주

안에서 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무릎 꿇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적잖은 학생들이 등록하고 기초신학훈련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학교운영진을 또한 축복합니다.

저희 삼남매는 나름대로 사회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법 많은 친구들을 가는 곳마다 만들어내는 아이들은 태권도로 국위선양을 하

기도 한답니다. 한인으로서 될수 있나요!?! 적어도 금메

달은 획득해야지... 나훔이는 아직 싸움이라고 인식되어 등록하기 꺼려 한답니다. 또래 아이들과 팔씨름하면 거뜬히 이기면서 겁먹기는 ...



감사합니다. 성도님의 기도로 차아빠스에 꿈이 자라납니다.



Christian Reformed World Missions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1.800.346.0075
www.crwmm.org

Rev. Abraham & Elaine Lee
Palenque, Chiapas, 29960 Mexico
abe@nanana.org (이성수 목사)
Elaine@nanana.org (이은희 사모)
www.nanana.org